

「미야자키의 겨울 풍물시」

11 월도 끝이 가까워지면 기온도 점점 내려가 겨울이 찾아옴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는 미야자키의 자연과 문화와 깊게 결부되어 겨울을 물들이는 몇 가지 풍물시를 소개합니다.

다이콘 야구라(大根やぐら)

일본 제일의 절임용 무 생산량을 자랑하는 미야자키현에서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면 다노초와 기요타케초 등에 거대한 다이콘 야구라가 모습을 보입니다. 높이 약 6m, 길이 20~150m의 대나무로 짜인 큰 망대에 무가 죽 걸려있어, 겨울 햇살을 받는 모습은 미야자키의 겨울 풍물시입니다. 산으로부터 불어오는 찬바람과 풍부한 일조량에 더해, 농가 분들이 정성스레 햇빛에 말리면, 지역 특산품인 무말랭이와 단무지가 완성됩니다.

다카치호의 요카구라(夜神楽)

다카치호정에서 열리는 요카구라는 매년 11월 중순부터 2월에 걸쳐 열리는 전통적인 제사입니다. 오곡풍양과 가내안전(家内安全)을 기원하며, 신들을 대접하기 위해 33번의 가구라가 밤새도록 봉납됩니다. 모닥불에 비치는 무대에서 신화에 비롯한 춤이 펼쳐지는 이 가구라는, 일본의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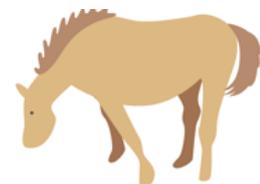


아오시마의 하다카 마이리(裸まいり)

야마사치히코·우미사치히코의 휴가 신화의 고장 아오시마에서는, 전승을 재현하여 매년 1월에 소복과 흰 훈도시 복장의 참가자가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중 아오시마의 바다에 들어가 몸을 깨끗이 하여 무병식재(無病息災)를 기원합니다.

미사키우마(岬馬)의 겨울털

일본의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되어 있는 일본 재래종의 야생마가 생식하는 도이미사키에서는, 겨울이 되면 복슬복슬한 겨울털에 뒤덮여 광대한 초원을 걷는 따뜻해 보이는 미사키우마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풍경이나 행사를 통해서 미야자키만의 겨울의 매력을 느껴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일본어 번역은 후일,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이 코너로의 질문, 의견, 요청 사항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TEL : 0985-32-8457 FAX : 0985-32-8512 Email : miyainfo@mif.or.jp

일상생활에 관하여 질문 및 고민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외국인 서포트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TEL : 0985-41-5901 FAX : 0985-41-5902 Email : support@mif.or.jp